

윤선영

<발도르프 유아교육의 첫걸음> 저자

참고자료: Erika Duehnfort/Ernst Michael Kranich

Der Anfangsunterricht im Schreiben und Lesen

우리나라의 7차 교육과정은 유아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문자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에게 해롭다 하여 문자교육을 전혀 하지 않고 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아직 발도르프 학교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어린이들을 방치하여 학교에서 위축감을 들게 할 위험이 있다. 필자는 내년 3월에 취학을 앞둔 유아들에게 가급적이면 어린이들의 생명력을 최소한 손상시키고자 시도해 본 문자교육을, 관심 있는 유아교사들 또는 초등학교 1학년 교사들과 함께 이론적 근거와 경험을 나누고자 한다.

## I. 교육적 근거

### 1. 말하기, 쓰기, 읽기, 문자 배우기의 의미에 대하여

말하기: 인간은 의식적으로 말을 통해 자신의 사고, 생각을 표현하고, 무의식적으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존재(감성적, 의지적, 지적인 특성 등)에 의해 조정된다. 자신의 내면에서 외부로의 표현이기 때문에 날숨에 해당되는 인간행위이기도 하다.

쓰기: 쓰기 역시 인간 속의 모든 것이 담겨 살아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외부로 향하지 못하고, 자신의 내적으로 향하게 된다(들숨). 그래서 살아있는 근원을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쓰기란 말의 죽은 기억의 공간적 기호(Zeichen)라고도 표현한다.

읽기: 읽기를 하는 동안 인간은 자신의 말, 생각, 사고능력을 움직여 문자 속에 죽어있던 말과 사고, 생각을 일깨우게 된다. 읽기는 말, 사실, 체험, 사고를 알리는 문자를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말하기, 쓰기, 읽기 중 가장 마지막 순서로 학습되어야 한다. 읽기는 이해와 느낌(Empfinden)의 움직임과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 능력이 이러한 발달에 적절할 때 수행되어야 하므로, 만일 그 이전에 읽기를 강요한다면 어린이들에게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발도르프 학교에서 읽기를 3,4학년에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문자: 문자 발달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림문자(Bilderschriften)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말 자체를 기호로 표현하는 철자문자(Buchstabenschriften)가 그것이다. 그림문자에 표현된 사물 또는 행위는 곧 이해와 생각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말하기와 읽기는 사물을 칭하는 것과 같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에 반해 철자문자 또는 표음문자는 인간이 말의 음성조형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와 개별적인 관계를 형성해야만 한다. 말하기에서 쓰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는 음성조형을 전체로서 그리고 또한 전체는 개별적인 음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익숙해야 한다. 따라서 한자와 같이 상형문자인 그림문자의 경우 문자쓰기 교육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표음문자인 경우 문자(쓰기)를 익히기 위해 특별한 동반작업을 요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일찍부터 단어의 다양한 음성속성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음성과 철자를 연결하는 데에는 쓰기와 읽기를 배우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 단어는 여러 개의 음성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 한 개의 음성을 바꾸거나 심지어 액센트를 주어도 다른 단어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어린이들은 쓰기를 배우기 시작하는 과도기에 세분화된 음성의 질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단어의 음성조형과 말(언어)을 좀더 긴밀하고 의식적으로 배우기 때문이다. 쓰기를 하기 전에 연령에 적합한 시 낭독과 같은 예술적인 언어교육을 통해 시작한다면 언어에 대한 느낌을 촉진하는데 매우 바람직하다. 만일 이러한 음성체험과 언어체험을 소홀히 한다면, 쓰기를 통해 언어를 의식화하는 것이 반절 정도 밖에 이루어질 뿐 만 아니라, 영적인 세분화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학령기 이전과 저학년기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음성을 체험할 수 있는 낭독과 노래를 많이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일은 유아 문자교육을 위해 해야 할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음성을 철자로 연결하는 것은 읽기의 기본과정으로서 사고, 지적 발달과 연결된다. 사고란 인간이 이것과 저것 또는 다양한 사실들 간의 관계를 배우면서 발달하는 것이다. 읽기를 그저 기호와 음성의 조합으로서 가르친다면 어린이들은 내적인 연결을 하지 못하여 정신적인 과정과 영적인 과정이 인간 안에서 분리된다. 읽기-쓰기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음성의 속성을 체험하고 음성의 속성과 철자조형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와, 영적인 힘과 정신적인 힘이 학습의 전체적인 단계에서 의식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이다.

## 2. 수업방향

쓰기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 요소이다.

1. 옛 이집트 사람들의 그림문자와 같은 그림의식(Bildbewusstsein) 촉진
2. 설형문자에서와 같은 다이내믹-운동적 힘(dynamisch-motorische Kraefte)
3. 형태 그리기

이 요소들은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든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그 근거를 기술해 보겠다.

### 1) 그림으로부터 철자습득

독일어의 경우 알파벳의 철자는 예전의 그림들이 줄어든 것인데, 단어의 그림을 첫 음절로 만든 음성으로 표현하는 원리에 입각한 문자이다(첫 음절 표음문자의 원리). 자음의 경우 두 가지의 환타지를 떠올려야 한다. 하나는 음성에 속한 철자에 적절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단어를 찾는 일과 또 하나는 철자의 형태와 관련된 그림을 만드는 일이다. “T”의

경우 “Tor”(문)를, “B”의 경우“Baeren”(곰들)을, ”Segel“(돛)의 움직임에서 ”S”를 찾는 것이다. 슈타이너는 Fisch(물고기)의 F를 물고기의 모양 세로 선과 양 옆 지느러미 모양의 가로지르는 선을 가지고 설명했다. 물고기의 첫 음절 F 음성을 가져와 그림으로서 전체를 익히게 한다. 어린이들이 그림을 모방하면서 문자는 추상적인 것이 아닌 사물 → 그림 → 기호로 점차 생겨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살아있는 그림적인 것 안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의지와 느낌을 활성화하여 음성이라는 존재와 진짜의 관계를 형성하게 해 준다. 배우는 단어의 내용을 그림으로 체험하면서 철자의 형태를 익히게 되는 것이다.

## 2) 움직임으로부터 철자의 형태로

움직임이 문자기호의 형태로 길을 열어주게 되면, 대신 그림은 빠지게 된다. 형태 그리기나 오이뤼트미를 많이 해 본 어린이들은 형태에 따라 걷기에 익숙해 있다. 슈타이너는 모든 문자가 직선과 곡선 두 가지로 이루어졌음을 바탕으로 이 두 가지의 형태에 익숙하게 한 바가 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형태, 예를 들어 원의 형태에 따라 차례로 걸어보고 나서 원의 형태 중 일부를 열어 또 걸어 본 후, 마지막으로 철자 G를 익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G의 철자 형태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어린이들과 함께 모아보는 것이다. 그러면 형태와 음성이 어린이들의 느낌과 연결될 수 있다. 슈타이너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어떤 행위모양을 모방해 보고 그것으로부터 전형적인 제스처를 알아내고 다시 그것으로부터 철자모양을 기호적으로 익히는 방법도 예로 든 바가 있다. 예를 들어 물결의 파도로부터 W, 바람이 부는 모양으로부터 S를 익힐 수 있다는 것이다. 사물의 모양, 움직임, 행위 등을 통해 자음을 익히는 것에는 어떤 처방전은 없다. 교사의 개인적인 표현과 환타지로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발도르프 유아교육 기관에서 자주 놀이감으로 등장하는 줄(면실이나 털실로 짠 달팽이 끈)을 이용하여 형태의 모양을 움직임으로 따라 걸어보게 방법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한글의 형태에 매우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 3) 모음을 위한 문자기호

기본모음을 위해서는 많은 환타지와 영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O와 A에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게 되고, U는 두려움의 느낌이, E에서는 방어하거나 끝없이 이어지는 느낌(예; See)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주요모음 학습은 오이뤼트미를 하면서 익혀질 수 있다. 그러나 오이뤼트미 전문교사가 아닌 일반 교사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같은 모음이 계속 반복되는 시구를 사용하여 간단한 신체의 움직임(예; 손뼉치기, 발구르기, 음률에 따라 부르기 등)과 동반하는 것은 모음의 음성을 개별적으로 느끼게 하기에 적절하다고 여겨진다(예; 오서방 오이따러 가세, 배서방 배따러 가세...). 물론 같은 자음이 반복되는 것도 가능하다(예; 사사사사 바람이 살살 분다, 소소소소 바람이 술술 분다...). 이러한 시구에서 의미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리듬적인 운율이 담긴 신명나는 시구가 어린이들의 음성 익히기에 즐거움을 더해 주는 일이다.

## 4) 철자학습을 위한 환타지에 대하여

이 방법은 필자의 경험으로 동화를 들려주면서 하기 좋은 방법이다. 이야기 속 거인과 같은 ‘녀석’(Kerl)에 대하여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시 구절을 통하여 K의 음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철자를 배우는 것이다. 이럴 때에는 음성보다는 오히려 (녀석에 대한) 그림이 철자를 익히게 하는 요인이 된다. 주의할 점은 어린이들이 단어 전체와 K라는 철자를 혼동하지는 않고 그 ‘녀석’이 우리에게 K를 선물했다는 것으로 K를 익히도록 해야한다. 한국어의 경우 짧은 동화나 전설(초등학교 어린이의 경우)을 들려주고 예를 들어 공명정대한 원님이 등장할 때 그 원님의 모습(그림)을 그려본 후 원님이 다스리는 지휘봉을 가지고 앉아 있는 모습에서 “원”이라는 음절을 익히게 할 수 있다.

## II. 내면화

위에서 살펴본 교육적 근거는 교사 스스로 내면화하지 못한다면 많고 많은 이론 중에 하나인 객관적인 이론에 불과하다. 교사 개인이 스스로 문자교육을 해야하는 이유를 인식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 다음에는 어린이들의 연령을 생각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발도르프 유아교육기관에서는 학령기 이전에 문자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의해 1학년에 들어가면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문장으로 받아쓰기를 한다는 것에는 어린이들이 이미 한글을 떼고 학교에 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가 입학하기 전에 미리 학습지나 기타 교육기관을 통하여 문자를 배우게 하고 있다. 우리는 학교공부 까지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조기교육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은 줄일 수는 있다. 여기에서 문제란 문자를 추상적인 기호로서 그대로 기계적으로 익히게 하는 어린이들과 분리된 학습방법에 있다. 학령기 이전의 어린이들의 경우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그들의 독특한 그림적인 사고방법과 움직임과 반복을 즐겨하는 특성에 적절한 수업으로도울 수 있을까를 놓고 많은 고민과 창조적 연구를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아직 발도르프적인 문자교육을 시도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다음의 몇 가지 단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문자교육 수업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여기에는 한국어가 음성문자로서 어떤 사물을 형태로, 소리로, 그림으로, 문자로의 과정을 동반하는 것을 기초로 삼았다.

1. 생동감 있는 형태 체험(형태에 따라 걷기, 다양하게 걷기, 공중에 그려보기 등) - 자음에 대한 형태의식
2. 종이 위에 형태 그려보기 - 자음과 모음의 기초 형태(수직선, 수평선, 곡선, 사선, 원, 네모 등등)
3. 시 구절 낭독(음성 연습) - 운율이 담긴 반복적인 시
4. 칠판에 이야기나 특별한 사물(또는 동물 등)과 관계된 단어에 대한 그림 그리기 - 문자가 담긴 그림
5. 그것으로부터 서서히 문자 출현시킴(예; 꼬끼리의 코와 상아가 길어지고, 몸이 야위어 지니 “코”가 됨)

6. 공책에 (그림을 그려보고 - 유아기이기 때문에 꼭 하지 않아도 된다) 문자를 써 본다. 이러한 방법은 궁극적으로 어린이들로 하여금 형태와 그림을 함께 연습한 후 몸과 소리, 영혼으로 문자를 익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한자라도 더 가르치는데 목적을 둘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아는 글자를 다시 새로운 (치료적)방법으로 익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 어린이들이 학령 이전의 유아기라는 점에서 가능하면 같은 순서를 반복하여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필자가 일주일에 한 번 어린이집에 출근하는 이유에서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하기로 했으나, 회수는 각 유아교육기관의 상황과 교사의 역량에 따라 적절히 구성할 수 있는 문제라 여겨진다. 그러나 형태를 무엇으로 만들며, 어떤 방법으로 견게 하는가, 인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등등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마음의 준비를 하였다: 우선 달팽이 끈과 같이 촉감에도 좋은 것을 많이 사용하고, 맨발로 걷기와 움직임은 리듬감 있는 시 구절과 노래를 부르며 하거나 다양한 움직임을 하면서 몸으로 형태를 체험할 수 있게 하기로 한다. 움직임이 끝나고 조용히 그리기를 하기 직전에 어린이들과 진정으로 하나씩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그 느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형태 그리기는 사각형 밀납 크레용을 가지고 하며, 아무 줄도 쳐 있지 않은 공책을 사용한다. 교사는 칠판을 장만하여 분필로 면으로 이루어지는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이야기를 들려 준 후에 그림으로부터 문자로의 길을 동반한다. 그리고 다시 개별적인 인사를 나누며 마친다. 이 같은 준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가는 수업을 할 때마다 조금씩 즉흥적으로 변화를 주거나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창의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 III. 교육자료

문자교육을 위해 아직 찾아내야 할 자료는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필요한 자료의 방향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유용하게 쓰여질 것이다.

1. 형태에 따라 걷거나 움직이기를 위한 자료: 유아와 1학년 아이들을 위한 형태 그리기 (김용근), 아이들과 함께 하는 형태 그리기I 등(학령기 아동이 아님에 유의하여 “사랑의 실험시도”로 유아기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2. 시 구절, 동요 낭독을 위한 자료: 주로 음률이 들어있는 전래동요나 유아들을 위한 시나 노래가 이에 속하며 가자가자 감나무(박향미), 손동작과 동작놀이(이영심) 등이 있다. 특히 유아들의 손유희를 위해 지어진 책들 중에 (울동은 빼고) 좋은 시들을 건질 수 있다.
3. 이야기 들려주기를 위한 자료: 주로 동화나 이야기책이 이에 속한다. 박박 바가지(서정오), 아빠가 들려주는 밤하늘 이야기(정해왕 외), 자꾸 자꾸 나오는 향아리 등이 있다.

### IV. 교사의 창의적 조형작업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내면화가 이루어진 후 수집한 교육자료를 가지고 교사는 또 다시 고민의 늪에 빠져야 한다. 그것들을 어떻게 서로 연결시키면서 의미 있는 수업시간을 어린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가 말이다. 움직임, 음성, 형태, 그림, 철자, 노래, 시, 이야기 등을 서로 연결하여 그리 복잡하지 않으면서 생동감 있는 수업구성을 하려면 여러 번의 경험과 창의적인 조형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나선형 모양이나 파도모양과 같은 곡선 형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는 ‘ㄱ’과 곡선의 느낌이 담겨 있는 ‘꼬부랑 할머니’ 이야기나 ‘고바위 영감이’와 연결시키고, 원 모양의 형태를 체험한 후에는 ‘양’이나 ‘보름달’과 같은 이야기와 함께 문자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또한 그림과는 상관없이 ‘토마토는 통통통’이나 ‘갈밭에 갈잎이 갈갈’과 같이 같은 음성을 반복하는 시 구절을 통해 언어의 소리가 가진 속성 중 리듬감 있는 음성을 가깝게 느껴보는 시간을 언제 삽입하는가도 중요하다. 필자의 경우 이야기 속의 단어 중 특히 첫 분절음이나 가꿈은 첫 자음을 중요시하여 그림화 했는데, 그림과 글자를 연결하는데 교사의 창의적 상상력이 무수히 요구되었다. 이야기를 그림화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거꾸로 문자를 그림화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 V. 경험(실제활동의 사례)

다음에 필자가 어린이집에서 직접 어린이들과 함께 한 활동내용을 연구일기에 기록한 것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001년 3월 23일>

1. 주제: 수직선 <문자교육을 위한 기초 형태와 움직임>

2. 내용:

- 1) 수직선 형태로 걷기
- 2) 다양하게 걷기
- 3) 손가락으로 공중에 그려보기
- 4) 칠판에 그려보기
- 5) 종이(공책) 위에 그리기
- 6) 다양한 크기와 색깔로 그리기

3. 진행과정:

- 1) 교실 바닥에 달팽이 뜨게 줄(긴 끈)로 수직선을 만들어 놓는다.
- 2) 어린이들이 한 줄로 서서 차례로 직선으로 걸어보기를 4 차례 정도 했다.
- 3) 한발로 뛰어서 걷기, 줄을 사이에 놓고 교차로 걷기, 발을 1자로 붙여서 걷기 등 다양한 걸기를 했다.
- 4) 손가락으로 공중에 그려보기를 교사가 먼저 한 후 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그려나 자기

가 글씨를 쓰는 손으로 따라 해 본다.

5) 벽에 커다란 종이를 붙여놓고 한 사람씩 그려본다(\*칠판이 없어서 그랬음, 이후에는 칠판에 했음).

6) 공책에 다양하게 그려본다. 점점 크게, 점점 작게, 색깔을 섞어서 등.

#### 4. 결과 및 평가:

첫 문자교육 시간이라 어린이들은 “공부”를 한다고 온통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교실에 모였다. 공부를 한다는 즐거움과 기대가 너무나 커서인지 형태에 따라 걷기, 그리기, 등을 무척 잘 따라서 해 주었다. 그러나 글자 쓰기를 아직 하지 않으니 끝 부분에 가서 실망스러운 모양이다. 다음엔 무엇을 배울지 물어보는 아이들의 질문에 ‘글씨, 무엇이 올까’ 하며 기대감을 심어주고 수업을 마쳤다.

#### 5. 다음 계획:

칠판이 없어 종이를 벽에 붙였다 떼다 해야해서 불편한 점이 많으니 칠판을 꼭 장만해야겠다.

<2001년 3월 30일>

#### 1. 주제: 수평선

#### 2. 내용:

- 1) 수평선 형태로 걷기
- 2) 다양하게 걷기
- 3) 인사(악수)
- 4) 손가락으로 공중에 그려보기
- 5) 칠판에 그려보기(\* 칠판 장만했음)
- 6) 종이(공책) 위에 그리기
- 7) 다양한 크기와 색깔로 그리기
- 8) 끝인사

#### 3. 진행과정

동작을 먼저 하면서 어린이들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옆으로 걷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처음이라 그렇고 십여 차례가 지난 나중에는 문제없이 하게 됨). 둘이서 손을 잡고 옆으로 걷기와 뛰기는 더욱 어려워하였다. 아직 다양한 모양으로 걷는 것이 어린이들에게 부담스러운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인위적인 행동을 모방한다는 것이 어려운 모양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걷기로 마쳤다. 그 다음 어린이들마다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하고 지난 번과 같은 방법으로 수평선 동작과 그리기를 하였다. 수평선은 역시 그리기도 수직선 보

다 쉽지 않았다.

#### 4. 결과 및 평가

움직이는 동작이 다양해질수록 어린이들은 어려워했다. 크고 작은 선 그리기는 어린이들의 성격과 건강상태를 잘 나타내 주고 있었다. 어떤 아이의 선은 좀 나약해 보이고, 어떤 아이의 선은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무척 진지하게 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어떤 아이들은 집중을 하기보다는 교사의 관심을 끌고자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도 있다. 아직 공부보다는 삶이 중요한 아이들 모두를 수용해야 한다. 신체적 움직임이 많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많다. 신체적으로 나약한 아이들의 형태 그림은 연약해 보였다. 악수를 할 때 손이 따뜻한 아이들과 차가운 아이들이 있었다. 따뜻한 손을 가진 아이들은 감기 기운이 있는 아이들도 있었다. 특히 선이 약한 어린이들의 손이 따뜻했다.

#### 5. 다음 계획:

앞으로는 동작에 대하여 ‘이렇게 해 봐라’ 하고 과제를 내기 보다 교사가 먼저 하고, 아이들은 자신이 ‘원한다면’ 그냥 따라 하기를 많이 하여 움직임을 자유의지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렇게 곡선과 원까지를 한 후 문자교육으로 들어갔다.

<2001년 4월 18일>

1. 주제: : “가지” <형태에 따라 움직이기와 그림을 통한 문자 배우기>

#### 2. 내용:

- 1) 달팽이 형태 움직임
- 2) 수직선과 수평선 그리기
- 3) 이야기 들려주기(커다란 가지 - \* “커다란 무우”의 이야기를 바꾼 것임. 칠판에 이야기에 대한 그림을 먼저 준비해 놓았다)
- 4) 그림에서 문자로(가지 “가”, 지게와 지팡이의 “지”)

#### 3. 진행과정:

- 1) 달팽이 형태로 노래를 부르며 달팽이 만들기와 풀기
- 2) 인사: 개별적으로 악수하며 인사
- 3) 공책에 달팽이 형태 그리기
- 4) 공책에 수직선과 수평선 그리기(복습)
- 5) 커다란 가지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기 (미리 칠판에 그림을 그려 놓았다)
- 6) 가지를 먹고 나서 껍데기와 꼭지만 남아서 “가”



- 7) 가지가 크고 무거워 지게에 싣고 가야하고 무겁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지”
- 8) 공책에 가지 쓰기
- 9) 가지와 지게, 지팡이 그려보기
- 10) 끝인사

#### 4. 결과 및 평가:

시작하기 전 두 반의 취학반 어린이들이 모이는 것이 분위기를 무척 산만하게 했다. 두 명의 아이들이 서로 다투고는 울며 다른 곳에 가서 외면을 하고 있었다. 나는 둘에게 “공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하며 우선 둘 없이 시작하겠다고 했다. 위의 과정을 한참 진행하는 과정 중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칠판그림을 보여주자(아이들이 칠판의 그림에만 관심을 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칠판을 돌려놓았다가 보여줌) 장난을 치던 아이가 갑자기 자기 자리에 앉았다. 그러다 다시 일어나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하는 내 앞을 가로막고 친구들이 보이지 않게 했다. 두 번 정도 네 자리에 가든지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다(이 아이는 십여 회가 될 때까지 나를 시험하였던 아이다). 나는 대단히 엄하고 진지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앉거나, 방해하지 않도록 비켜 주세요!” 라고 말하자 깜짝 놀라는 듯 하는 모습이다. 아마도 달래주고 관심을 더 가져주길 기대했던 것이 빗나가서일까? 우리들의 밀고 당김은 계속될 것 같다.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데 두 글자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은지 수성이는 시시하다고 했다(수성이는 “문자실력”이 대단히 높은 아이다). 나는 다음 시간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그리고 몇 개의 글자가 나올지? 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글자를 전혀 모르던 아이들은 대단한 호기심을 가지고 대하였다. 그리고 칠판그림에 대한 관심을 무척 많이 가지고 있었다. 교실을 나가면서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은 양 “아, 참 재미있다”라고 입맛을 다시며 말하면서 나가는 아이들이 있었다.

#### 5. 다음 계획:

사회가 원하는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어린이들과 인간적으로 가까울 수 있는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좀 더 어린이들과 내면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달팽이의 모양이 오늘 문자 “가지”와는 어울리지 않았다. 다음부터는 문자에 담겨있는 형태를 가지고 움직임 시작하도록 유의해야겠다.

<2001년 4월 27일>

1. 주제: “바가지”

#### 2. 내용:

- 1) 달팽이 끝으로 비의 형태를 바닥에 만들어 놓고 걸어보기
- 2) 손으로 공중에 사선 선긋기

- 3) 직선과 사선 공책에 그리기
- 4) 다양하게 그리기
- 5) 지난 시간에 써 본 글씨 다시 써 보기(가지)
- 6) 옛이야기 들려주기 (“박박 바가지”) (칠판에 이미 그림 그리기를 준비 해 놓았다)
- 7) 바가지 문자 출현 및 써 보기

### 3. 진행과정:

움직임 시간을 마치고 인사를 한 후 (책상)수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00이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 공부 안해!’ 하면서 복도에서 들어오려 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복도에 있으면 아무도 돌보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들어와서 구경만 하라고 했다. 그리고는 우리끼리 그냥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가 재미있는 시간만 보내면 자기도 얼른 와서 공책에 그려보고는 공책을 나에게 획 던지고 다시 저쪽으로 가서 벌렁 누워 있기를 여러 번을 반복했다. 그때마다 나는 00이가 던진 공책을 얼른 받아들이고 ‘참 잘했네’ 하고 다시 정중히 제자리에 가져다주곤 했다. 마지막에 동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기 자리에 앉아 열심히 듣기도 했다.

### 4. 결과 및 평가

00이는 틈만 나면 나를 시험하고 있다. 00이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노랑색으로 머리를 물들인 만큼이나 튀는 아이, 수업이라기 보다 가끔은 그 아이와의 줄달리기 놀이를 하고 있는 듯 하다. 앞으로도 주의하여 00이에게 진지하고 한결같은 반응으로 00이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해 보아야겠다.

일반적으로 비을 공책에 쓰는데 순서가 틀리게 쓰는 어린이들이 많다. 나는 바닥에 비을 그려놓고 여러 번 순서대로 밟고 다니는 연습을 유도해 보았다. 행여 동작으로 해 보면 좀 다르지 않을까 해서 실험해 보았다. 역시 순서에 맞게 쓴다는 일은 유아기 어린이들에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음부터는 내가 먼저 순서에 맞게 써야한다는 관념에서 자유로워지되, 순서에 맞게 걸어보기를 어린이들이 무의식중에 할 수 있도록 교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움직임과 쓰기를 해 보겠다.

글자를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어린이들은 순서와 글씨 쓰는 힘과 선의 모습은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았는데도 항상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한다. 기초를 다져야 하는데, 가끔은 “가르치는 것”이 너무 적어 어린이들에게 너무 쉬운 것은 아닌가 싶지만, 어린이들의 기존 학습을 치료한다는 확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글씨 많이 알기가 아니라 글씨를 쓸 준비운동과 글씨와의 내적인 관계형성에 있기 때문이다.

### 5. 다음 계획:

- 1) 움직임(동작연습)에 좀 더 유의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 2) 치밀하게 계획된 준비와 순서가 어린이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 3) 어린이 개개인과 상호작용을 늘여야 한다.
- 4) 안정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대한다.
- 5) 통합적인 언어교육을 위한 이야기 고르기에 좀 더 신경을 쓴다.
- 6) 노래와 형태 그리기 연습 자료 고르기

<2001년 8월 23일>

1. 주제: 손 (스 음성연습)

2. 내용:

- 1) 달팽이 끈을 이용해 ‘끈이 마술을’ 부리듯 수직선과 수평선에서 곡선, 원, ㄱ, ㄴ, ㄷ 모양, 네모(口), ㅅ 모양으로 변화를 주며 걸어본다(그 동안 복습과 반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었다).
- 2) 공책에 동작으로 해 보았던 여러 가지 모양을 그려본다(형태 그리기).
- 3) 칠판에 미리 써 놓은 음률 있는 시구를 읊으며 손동작을 해 본다(\* 교사인 나를 위해 써 놓았다 - 못 외웠기 때문).

\* 엄지끼리 서로 툽툽툽

인지도 사이좋게 툽툽툽

중지도 내세워서 툽툽툽

약지도 뒤질세라 툽툽툽

새끼손가락도 툽툽툽

소리가 만나니까 짹짹

- 4) 칠판에 미리 그려놓은 손을 보여주며 뚱뚱한 손과 흘쭉이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글자 “손” 출현

- 5) “손”의 ㅅ과 같은 모음이 반복되는 시구 읊기 (\* ㅅ구는 윤선영이 꾸몄음)

사사사사 바람이 살살 분다

서서서서 바람이 설설 분다

소소소소 바람이 술술 분다

수수수수 바람이 술술 분다

쉬쉬쉬쉬 바람이 쉬----잇

3. 진행과정:

방학이 끝나고 (교사들은 여름 아카데미를 마치고) 오랜만에 문자교육을 하게 되었다. 가장 긴 달팽이끈을 찾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마술을 부리며 어린이들과 함께 걷기를 했는데, 전보다 나와 하나가 더 잘 되는 것 같다(아마도 아카데미 때 ‘자기교육’을 한 때문인가?). 그 전에 했던 형태들은 아이들이 쉽게 알아보고, 네모 형태를 스스로 ‘미움’이라고 부르며 따라했다. 끈이 짧아 다 모이기 힘들었는데도 口 와 ㅅ을 잘도 따라 걸었다. 오랜

만에 악수로 인사를 나눈 후 책상에 둘러앉아 수직선, 수평선, ㄱ, ㄴ, ㄷ, ㅁ, ㅂ을 그려 보았다. 그러면서 ‘수직선이 옆으로 누우면...’(수평선), ‘수직선이 다리를 길게 뻗고 앉으면...’(ㄴ), ‘수직선이 인사를 꾸벅 하면...’(ㄱ), 수직선이 인사도 하고 다리도 쪽 뻗고 앉으면 크게 벌린 당나귀의 입처럼 ㄷ이 된다...’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당나귀의 입 모양을 직접 해 보는 것을 재미있어 했다. 그리고 손동작을 하면서 시구를 읊고, 뚱뚱한 “손”(그림)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바짝 마른 흘쭍이 “손”(그림)이 되어서 나중에 “손”(문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문자가 출현하도록 했다. 아이들도 뚱뚱한 손, 흘쭍이 손을 그려보고, 그리고 손이라는 글자를 써 본 후, 끝으로 사과 모음이 반복되는 시구를 하나 읊고 마쳤다.

#### 4. 결과 및 평가

오랜만에 하니 아이들도 열심히 한다. 확실히 교사의 마음자세가 가장 중요함을 다시 깨달았다. 내가 먼저 확신과 안정감 그리고 짧고 간단하고 재미있고 부담 없는 수업을 해야겠다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니, 훨씬 나은 것 같다. 이제 아이들이 장난을 쳐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학교에 들어가면 의자에 등을 기대고 바르게 앉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된 듯 하다. 한 가지 문제점은 내가 별로 시간이 없어서 시를 다 못 외운 상태에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칠판에 나를 위해 써 놓는다, 아이들이 읽는다 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짧은 이야기와 그림을 보여주었는데, 아이들이 “손” 그림이 무섭다고 했다. 너무 그림을 생생하게 그려서인가? 마치 살아있는 손 같다고 했다. Kiersch 선생님께서 여름 아카데미 때 그림을 좀 더 정확히 상세히 그렸으면 좋겠다고 권하셔서 이번에는 좀 더 색을 칠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만 여름 특선 ‘납양특집’ 수업이 되어버렸다. 아마도 아이들이 평생 “손” 글자는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손이 무서워 보였기 때문에.

#### 5. 다음 계획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사실적이기보다는 아름답게 그려야겠다. 반복적 음성의 시구를 쉽게 연구하여 더 계속 지어야겠다.

이상으로 몇 개의 현장 사례를 소개하였다. 필자의 수업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독자들은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이렇게 누구든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신념과, 간단한 예술적인 그림과 시를 가지고 어린이들과 (우선은 교사와) 문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정성만 있으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수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필자는 지금 폭 8-9cm에 길이 4.5m 정도의 긴 달팽이 끈을 코바늘로 새롭게 떠서 다음에는 서로 부딪히지 않고 형태에 따라 움직여 보기를 할 예정이다. 나도 벌써 마음이 부풀어서 다음 수업이 기대된다.

## VI.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

지금까지의 유아 발도르프 문자교육을 시도해 본 결과 필자에게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나름대로 해결점은 아니더라도 교사의 내적인 상태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다. 아직은 연구하고 실험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산재해 있지만, 다른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까 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 글자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글을 전혀 배우지 못한 아이들도 있다: 글을 전혀 배우지 않았던 아이가 문자를 빨리 익히는 놀라움을 발견했다. 그러나 자칫 글자 자체를 익히게 하는데 목적을 두기 쉽다는 점이다. 그럼으로부터 문자 또는 형태체험으로부터 문자로의 이행과정이 얼마나 충실히 이루어졌는지를 교사는 항상 질문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거의 모든 취학반 어린이들이 문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이 과정을 새롭게 거치는 일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자를 이미 (집에서) 다 배운 어린이들은 처음에 대단히 실망을 한다. 배우는 것이 '너무 쉽고' 글자의 양도 '적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사가 창의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그 어린이들에게 배어있는 '공부'에 대한 인식은 점차 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 어머니들께 수업 방법과 의미를 알려드리고 직접 체험하게 했더니, 매일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어린아이들에게도 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는 1주일에 한 번의 수업도 충분한 것으로 여겨졌다. 더 어린아이들에게도 해 달라는 부모님들의 요구는 아직 이른 것 같아 좀 더 고려해 보겠다고만 했다. 우선 이번 1년간은 시도를 해 보고 내년에 좀 더 다듬은 수업을 할 예정이다. 어디든 유아교육기관의 상황과 시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많은 교사가 시도해 보고 장단점을 보완하여 서로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했으면 한다.

- 매 회 교사가 창조를 해야하는 부담 때문인지 스스로의 한계를 쉽게 느낄 수 있다: 문자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앞으로 더 연구해 보아야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한글의 특성을 살려 수업을 구성한다는 것은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점에서, 교사가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처음의 창조적 부담은 필수적이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어 좀 더 풍요로운 문자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 교사가 어린이들과 내적으로 진정 함께 하는가는 교육의 기본이다: 어린이들은 끊임없이 교사를 시험하고 있다. 교사가 잠시라도 문자교육 자체에 몰두하고 자신들에게 관심이 적어진다면 아이들은 곧 반응을 한다. 어린이들은 또한 가정상황이나 정서적인 상태에 대하여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무엇인가 말해 주고 있다. 교사는 어린이들과 함께 있지 못하면서 절대 그 어느 수업도 훌륭하게 해 낼 수 없다. 필자가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데 몇 개월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느낀 바이다. 나는 분명히 아이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아이들은 교대로 돌아가면서 나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다. 언젠가 그들이 행동으로 '선생님, 문자교육은 우리에게 아직 안 맞는다는 것을 알면서 왜 하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선생님은 알고 있지 않나요?’ 라고 묻는 것 같아 섬뜩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교사가 어린이들과 내적으로 함께 있게 되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린이들과 교사인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감싸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수업의 반복적인 순서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안목이 필요하다: 유아기 어린이들의 특성은 반복과 리듬적인 생활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수업도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 반복의 순서를 미리 예견하고 알고 하기에는 문제가 많다. 교사마다 나름대로 시도해 보고 차츰 수업의 순서를 정돈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교사에게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는가이다. 필자가 (형태에 따른) 움직임, 인사, 형태 그리기, 소리내어 시 읊기, 이야기 듣기, 그림 그리기와 문자 쓰기의 순서를 정하게 된 것은 외적인 들숨에서 내적인 들숨으로의 과정을 거치게 하기 위해 나름대로 만든 순서이다. 첫 인사를 형태 그리기 바로 전에 한 이유도 움직임으로 아이들과 전체로서 하나가 될 수 있기 쉽기 때문이며, 개별적인 인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개별적인 자리에 앉아 개별적인 공책에 몰두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근거가 옳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수정 보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교사인 내가 가지고 있는 근거에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어린이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 그 순서를 즐겁게 진행하고 있다면 교사의 안목은 분명 강화될 것이다.

- 문자교육은 원장이나 다른 특별한 교사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발도르프 교육을 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발도르프 유아교사는 무엇인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며, 인간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어린이들의 주변인으로서의 교육자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의 발달과 의지에 의하여 자유로운 모방을 할 수 있게 하던 교사가 갑자기 ‘너희들은 오늘부터 문자를 배워야 한다’라고 할 수 없듯이, 평상시 교사의 행위와 전혀 다른 모순된 행위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너희들이 원하면 문자공부를 함께 해도 좋다’라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는 있지만, 형태에 따라 걷기와 그리기는 아무 때나 원할 때 걷고 그리고 싶은 대로 완전히 ‘자유롭게’ 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교사가 문자교육을 담당할지 교사의 역할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결정을 잘 했는지, 그리고 문자교육이 잘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어린이들을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은 항상 교사의 부족함을 체면과 꾸밈없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알려주기 때문이다.